

中國 바지 形制 고찰

김 인 숙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the Trouser Forms of China

In 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1989. 5. 2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the concrete forms of the traditional Chinese trousers and finally to compare the forms and cuts of the Chinese, Japanese and Korean trousers, which shared the same form in the beginning.

The literature survey helps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first trousers of ancient China were adapted from the nomadic people of the North Asia.
2. The ancient Chinese had both forms of trousers consisted of (a) I-letter typed crotch line and (b) λ-letter typed crotch-line.
3. The folk trousers of China consist mainly of λ-letter typed seamline which is the trouser form shared among some of the North-Eastern Asiatic people.
4. The open crotch trousers are worn over the closed crotch trousers.
5. The open crotch trousers seem to be developed from the leggings of the nomadic people.

I. 序 言

바지는 봉재형 의복의 하나로 人體와 피부재료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바지는 그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풍토와 관습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편 上衣에 가리운 下衣이므로 表衣의 기능이 비교적 약하여 유행에 따른 변화가 적어서 한 나라의 민속복으로서의 고유한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本稿에서는 복식문화의 초기적 共有期를 거쳐, 독자적 발전을 겪어온 韓·中·日 3국의 복식문화를 바지라

는 특정 의복을 통해 그 형태적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단, 원고의 분량상, 3국 바지에 관한 고찰을 나누어 실고자 하며, 本稿에서는 三國의 복식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온 中國의 바지를 먼저 다룬다.

연구의 대상은 韓國·中國·日本의 문헌 중에 나타난 바지 유물 및 備·회화 등에 나타난 바지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3국의 고대에서 근대까지로 잡았다. 유물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문헌 자료에 의존한 이차적 연구이므로 구체적 형태의 판단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II. 문헌에 나타난 바지 用語

中國 바지의 시대별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中國의 바지 지칭에 나타난 몇가지 문헌상의 用語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中國이나 日本 문헌에서 袴의 形制를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開袴'와 '閉袴'이다. 開袴는 밑이 트인 바지, 閉袴는 밑이 막힌 바지를 이르는 것으로 모든 바지는 일단 開閉의 관점에서 고찰된 후 형태에 대한 관찰이나 서술로 넘어간다.

바지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用語인 '袴'의 古制는 오늘날의 套袴와 유사한 開袴로 본다. 즉 「說文」에서 "袴, 脛衣也"라 했고, 「釋名」에서는 "袴…跨, 兩服各跨別也"라 했으며,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서는 "卽今所謂套袴"라고 한 점 등을 예로 들어 中國 복식학자는 '袴'가 원래는 '開袴'를 지칭하며, 開袴類가 閉袴類에 우선하는 바지형태라고 본다.¹⁾

그러나 '袴'字와의 合成語인 '窮袴'에 대해서는 이것을 開袴로 보는 견해와 閉袴로 보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즉 玉字清은 「前漢書」孝昭上官皇后傳 注에 "窮袴, 謂有前後當, 不得交通也"라고 한 것과, 安師古가 "窮袴, 卽今之棍襠袴也"라 한 귀절을 「史記」趙世家載의 棍襠袴와 관련시켜 窮袴를 前後襠이 붙은 閉袴로 보고 있다.²⁾

周汛 등은 窮袴를 前後에 各一襠씩 붙이는 하였으나 봉합을 하지 않아 便을 보기에 便한 開袴라 하였다.³⁾ 周錫保도 福州黃昇墓出土 開袴의 설명에서 "此種(開襠袴)의 出現, 正足以證實與漢代昭帝時 '上官皇后令宮人皆爲窮褌'之說相符"라 하여 窮袴의 開袴됨을 시사하고 있다.⁴⁾

褌의 形制에 대해서는 王字清은 "短窄而縫襠"이라 하였고,⁵⁾ 周汛은 "褌襠被縫合之後, 卽可穿着外出"이라 하였다.⁶⁾ 즉 褌은 閉袴라는 점에서는 兩學者의 견해가 일치하나, 王字清은 短窄하다는 점에, 周汛은 外衣의 閉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대체로 袴의 초기적 형태는 開袴로, 褌은 開袴로 보나, 窮袴에 대해서는 有襠袴로 보나 그 開閉여부에 대한 異見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袴'라는 用語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차차 開袴만을 지칭하지 않고 廣義로서 일반적인 男子의 바지를

의미하게 된 듯하다. 그 이유는 東漢代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였다는 大口袴가 몸에 밀착한 短上衣의 褌과 같이 한 벌을 이루어 袴襠으로서 널리 입혀졌다고 했는데 이때의 大口袴를 開袴로 보는 것은 古代라해도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袴'라는 用語는 적어도 東漢 이후로는 開閉袴類에 대한 포괄적 지칭이었다고 봄이 옳겠다.

袴의 形制에는 이외에도 바지통이 크고 무릎 아래를 묶어 거꾸로 늘어뜨린 '倒頓', 짧고 좁아 물을 건너는데 편하도록 한 魚人下服의 '校相' 등이 있었다고 한다.⁷⁾

한편 開袴制가 閉袴에 앞선다는 생각은 殷代의 袴褶姿를 보아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인다. 裳의 服飾文化圈에서는 腰布形 以外的 內衣가 自生的으로 발달하기는 힘든 것으로서, 開袴類의 出現은 殷代 이후의 胡服系 閉袴를 동반한 袴褶과 閉袴 위에 덧입혀진 接腰類를 접한 후에 裳文化圈 내에서 변형 발전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와 같은 관점만이 파르티아·페르시아·시베리아 등의 유목민족에게 일찍부터 閉袴를 同伴하여 나타나는 接腰의 出現이나, 또 宋代에서 開閉袴가 동시에 입힐 때 閉袴가 內袴로, 開袴가 表袴로 입히는 현상, 즉 閉袴가 開袴보다 더 몸에 가까운 襪衣의 衣類로 간주된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古代 中國의 바지

袍와 裳의 나라인 中國에 바지가 나타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戰國時代의 趙 武靈王代로 잡는다. 그러나 遺物을 통해 본 바지의 出現은 이보다 훨씬 더 上代로 올라간다. 즉 殷代의 銀·玉·銅·陶製 備中 상당한 수의 人物像이 着袴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신분은 낮게는 주변 유목민으로 보이는 노예나 시종으로부터 높게는 士大夫계급에까지 미치고 있어 바지는 靑銅期 中國의 上下계급에 두루 입혀졌던 복식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着袴 人物像에 대해 沈從文⁸⁾은 治者계급이라도 아직 勞政의 기능이 미분화되어있던 당시에는 勞動時에는 上級者라도 着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보아 中國의 바지를 中國自生的인 것으로 보고 中國 바지의 기원을 이 때로 간주하였으나, 任明美⁹⁾는 夏代 노동자 및 戰士들이 着裳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着袴의 習이 東北亞 方面 유목민의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筆者는 이들 人物像에 나타난 바지가 上衣나 頭裝의 모습으

로 미루어 볼 때 東北亞 유목민과의 관계가 깊다고 보나, 기원에 대한 兩說의 논거에 관계없이 일단 中國의 着袴習의 시원은 戰國時代가 아닌 殷以前으로 소급됨이 옳다고 본다.

한편 杉本正年¹⁰⁾은 적어도 中國 北部에서는, 中國人이 胡服을 趙나라 때에 와서 착용하기는 하나, 防寒을 위한 內衣用 바지는 그 이전부터 袍나 裳 속에 받쳐 입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견해를 펴므로써 表袴와 內袴의 기원을 二元化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古代 服飾文化의 發展史를 보거나 현재의 민속복을 볼때 일반적으로 裳을 취하는 服飾文化圈에서는 防寒을 위해 腰布나 內裳을 겹쳐 입는 정도이지 內袴를 취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中國人의 袍裳 속에 內袴가 存在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中國의 先史服飾文化가 夏代 노동자의 表現¹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裳의 服飾文化로 출발했다면 유목민과의 교류로 袴를 수용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裳으로 일관했으리라 본다.

殷代의 人物像에 나타난 服飾形制를 스키타이인의 그것과 비교하면, 그 기본적 形制는 左衽直領短上衣下袴의 二部式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文化圈의 着裝양식에는 차이가 있어 스키타이인의 바지가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단순한 모습인데 반해, 殷人의 着袴모습은 施文의 量, 帶의 넓이, 左衽과 右衽의 混用, 併用한 모자의 형태 등이 한층 정제된 느낌을 준다(圖 1, 2). 즉, 殷人의 着袴姿는 그 기본 形制는 스키타이인과 상당



【圖 2】 商代 人物俑 및 復原圖
(沈從文: 中國古代服飾史)

히 유사하나, 가일층 장식화 의례화된 형상을 취하고 있어 아마도 殷代의 바지는 스키타이인의 바지보다 더 오랜 발전 경로를 지닌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殷代의 靑銅器文化와 中央아시아 및 西아시아 유목문화간의 文化의 宗主性이나 문화 교류의 方向性의 문제는 고고학상으로도 아직 명쾌히 밝혀지지 않는 과제로 남겨져 있으므로¹²⁾ 위에서 본 古代 着袴의 習이 흑한의 풍토에서 발생하여 草原의 길을 따라 西에서 東으로 東進해 왔는지, 逆으로 西進해 나갔는지, 아니면 지구의 東西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自生·進化하는 과정에서 風土的·機能的 필요에 의해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西漢時代 元南地方에서 출토된 靑銅人物像 등의 얼굴 형상이 深目高鼻하여 유럽계 스키타이인의 전형적 형상을 하고 있음으로 보아(圖 3)¹³⁾ 기원전의 中國의 文物에는 간접적 교류를 통한 西方 유목문화의 영향뿐 아니라 유럽계 유목민의 실제적 거주 범위까지도 이미 東北亞 변경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殷代에 나타난 漢族의 着袴의 習은 春秋戰國時代를 거쳐 漢代에 이르는 동안 中國 固有의 儀禮中心의 文化로 이행하면서 차차 袍裳 中心의 복장 文化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春秋戰國時代의 人物像에는 상당수가 着袴를 하고 있고 騎馬姿가 새로이 나타나기도 하나, 이때 이미 裳의 복장文化가 上位계층의 文化가 되었음은 着裳者와 着袴者의 신분의 차이, 裳과 袍의 長褙化, 大袖化, 袍의 襟장식의 廣幅化, 表面장식의 豊부해짐 및, 冠帽의 二元



【圖 1】 Kul'oba 출토 합금병에 나타난 스키타이인
(Jettmar: Art of the Step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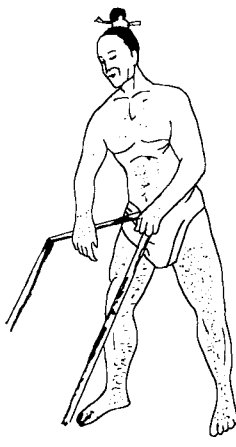


【圖 3-1】



【圖 3-2】

元南 발굴 청동기에 나타난 古代 民族
(考古學報, 1979年, 第 4期)



【圖 4-1】



【圖 4-2】



【圖 4-3】

漢代의 着袴姿: 左로부터 穿犢鼻褌者·穿短褲者, 行人, 勞
役人
(張末元: 漢朝服裝圖樣資料)

化, 즉 殷代에는 着袴姿·着裳姿에 두루 併用되었던 윗면이 평평한 冠帽가 周代에 이르던 着裳者는 高冠의 형태를, 着袴者는 平冠이나 巾을 착용하거나 冠帽를 생략하는 현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지는 胡服下衣로서 趙 武靈王代에 軍服으로 正式 채용되기도 하고 秦始皇陵에서는 대규모의 武人俑이 着袴의 모습으로 발굴되기도 하였지만 바지와 短上衣로 이루어진 胡服은 어디까지나 機能服 및 賤服으로 간주되어 노동자·천민·군인의 옷으로 제한되거나 裳 아래 감추어진 內衣의 용도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歷史의 前景을

이루는 治者계급의 背景에 머물렀어도 數的으로는 압도적이었던 이들 천민이나 노동자 계급 및 武人의 복식문화 속에서의 바지의 위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周代의 人物像이나 西漢·東漢의 壁畫·磚·玉具 등에 나타난 畫像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寬袴·細袴·縛褌 등을 上下武官·侍從僕婢 庶民들이 常着하였고, 下層의 부녀들 또한 치마 아래, 혹은 袍 아래 下衣로 입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속바지로는 犢鼻褌·穿短褌의 모습이 보인다(圖 4).¹⁹⁾

漢代의 舞服바지 중에는 清代 末期에 보이는 鑲, 즉



【圖 5-1】長冠의 着袴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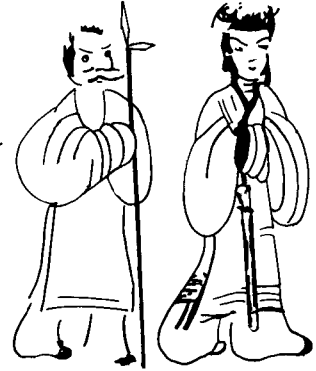
【圖 5-2】爵弁冠의 着袴姿
(張末元：漢朝 服製圖樣資料)

넓은 二重撰이 바지부리에 장식된 바지도 보인다.

한편 上層 官官人의 복장에서도 바지가 보인다. 즉, 祭服의 경우에는 皇帝·三公 等の 冕服 및 巧士·建華·方山冠 等은 裳이 밖으로 내다보일 뿐이나, 長冠의 경우에는 통 넓은 直袴가, 爵弁冠의 경우에는 括袴가 긴 袍 아래로 약간 내다 보인다(圖 5). 朝服의 경우에는 武冠



【圖 6-1】



【圖 6-2】

漢代의 着袴姿

((6-1) 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究)

((6-2)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

服에만 括袴가 보이며, 仕宦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袍가 길어 받침옷이 잘 보이지는 않으나, 中衣 아래 상당히 넓은 廣袴를 밑단을 묶은 括袴 형태로 입은 듯하다.

漢代의 바지를 前代의 바지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後漢에 와서 바지통이 상당히 넓어지고 그 길이가 길어진 점이다(圖 6). 圖樣上에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周汎의 “東漢末년에 ...大口袴가 出現”¹⁵⁾ 하였다는 지적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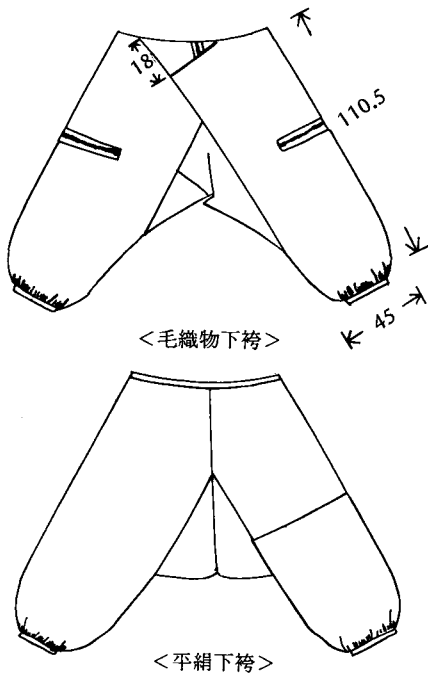
이 大口袴는 이전부터 小袖左衽短上衣와 小口袴로 이루어진 東北亞系胡服이 차차 廣袖·大口袴로 변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즉 殷代에 이미 小袖 小口袴의 모습으로 나타난 胡服이 軍服으로만 입혀지다가 官服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서민복이 되기도 하면서 東漢이후 바지통이 넓어지는 大口化의 경향을 띄우게 된다. 이와 같은 廣袖·大口袴胡服, 즉 袴褶은 機能服 뿐 아니라 袍의 받침옷으로서 바지의 형태에도 영향을 끼쳐 袍 밑에 길게 늘어진 바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胡服의 廣袖化, 大口袴化의 유래에 대해서 「晉書」 輿服志에는 “袴褶之制, 未詳所起”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胡族社會 內부의 계급 분화로 인한 위계질서의 상징으로서 小袖, 小口袴, 大袖, 大口袴로의 分化.

둘째, 儀禮文化의 발달로 인한 漢袍의 廣袖 長裾化 영향.

셋째, 헬레니즘의 전파 등으로 인한 卷衣文化의 영



【圖 7】 Noin·Ula 出土 바지
加藤定子：亞細亞服飾學術會議抄錄

향. 이에 대해서는

朱揆「釵小志」에 “武帝嘗降王王子家，武帝供饌並用琉璃器爲婢子百餘人，皆綾羅袴褶，以手擎飲食”한 귀절은 漢代의 袴褶과 유리그릇, 손으로 밥먹는 관습과의 유관함을 시사한 부분이 있어, 大口袴와 中央아시아, 즉 파르티아, 박트리아 등의 西域風의 영향을 추측하게는 하나 정확한 유래 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자료를 요한다.

漢代의 바지의 구체적 形制는 자세히 알 길이 없으나, 원래 中國의 表衣로서의 바지는 東北亞 계통의 胡服 수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漢代의 바지 또한 胡服 바지의 수용·계승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때의 바지는 기원전후에 속하는 노인·올라 出土의 흉노왕의 바지와 유사성이 크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노인·올라 出土 흉노왕의 毛製·絹製바지 두 점은 모두 바지통이 약 90cm 內外이며 바지부리를 좁은 帶狀으로 cuffs 처리한 바지로서 외관상으로는 두 形制가 유사해 보이나 밀위슬기의 봉제법을 자세히 고찰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絹製袴의 바지의 양 가랭이를 左

右대칭으로 보고 그것을 연장시켜 앞 中央에서 만나게 한 형태인 반면, 毛製袴는 下肢와 골반부위를 한 枚의 布나 가죽으로 다리 外側으로부터 가능한한 충분히 덮어 준 연후에 나머지 부위를 다른 布로 보충해주는 관점에서 형성·발전된 바지로 보인다. 즉 絹製袴는 밀위선이 앞중심 및 뒷중심 線上에 있으나, 毛製袴는 中心線이 斜線으로 이루어져 入字를 이루며 골반 부위를 左右 非대칭으로 나누고 있다(圖7).

이 두 유형은 곧 Hansen¹⁶⁾이 말한바 양말형 바지와 혼합형 바지의 구분과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몽고의 민속袴의 특징을 이루는 사폭형-入字밀위형 바지의 존재를 기원전후의 유물 바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또 지금까지 알려진 西洋服 바지에는 近代는 물론 비교적 上代의 것에도 양말형 바지만 나타나며, 이와 같은 사폭형-入·入·入字 밀위형 바지는 東北亞 一帶에 제한된 특성으로 傳承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한센은 '직각슬기'로 표현한다), 흉노왕의 毛製袴의 이와 같은 구성법은 상당히 上代로 소급될 수 있는 東北亞一部袴 양식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入字밀위형 袴는 獸皮 등을 이용한 바지구성의 보다 원시적 방법으로서 구성법의 발달에 따라 양말형으로 발전해 갔다고도 볼 수 있겠고, 따라서 AD 4C경의 게르만의 바지는 東北亞의 바지보다 후기 단계에 속하는 바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단계를 넘어서 연후에도 東北亞의 袴는 초기 단계의 구성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毛製袴는 길이가 약 112cm임에 반해 絹製袴는 약 101cm로 대략 10cm나 짧고 바지 밑 중앙에 작은 트임이 있어 內袴로 보인다.¹⁷⁾

유물의 연대가 기원 전후로 추정되므로 大口袴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나 이 두 바지의 바지통 90cm는 後期 유물 바지들의 바지통에 비해 약 10~20cm 정도 더 넓은 것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흉노족의 바지 역시 漢以前에 보이던 窄袴制에서 寬袴制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올라의 바지에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바지부리에 別布의 襠대신 좁은 帶로 바지부리에 주름을 잡아 오무린 것으로 殷代에 자주 보이던 施文이나 襠의 관습이 차차 줄어들어 온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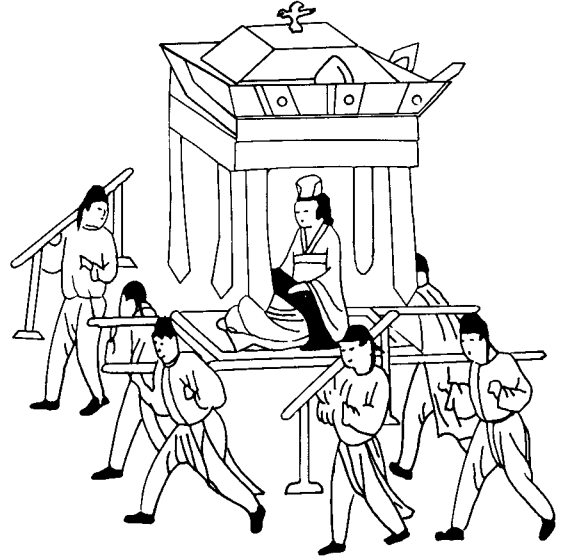
즉 漢族을 중심으로 한 中原의 복식문화가 春秋戰國시



〔圖 8-1〕



〔圖 8-2〕



〔圖 8-3〕

北朝人の着袴姿
(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究)

대를 지나면서 차차 儀禮 중심의 袍裳문화로 바뀌면서 바지는 襪衣나 노동복·기능복으로 그 격이 하강되면서 장식적 요소를 점차 배제해 나가게 되고 그 재질·色·문양도 보다 질박해진 것 같다.

IV. 中世 中國의 바지

漢 이후의 中國 문화는 南北朝 이래 北方諸族이 中原을 휩쓸게 되자 古來의 漢文化는 揚子江 유역으로 南下하고 華北 및 中原에는 鮮卑系 胡族 문화가 기존 漢文化와의 接木을 시작하였다.

복식문화도 南北朝 초기에는 北朝에서 漢의 服制를 받아들여 公服을 漢化하여 袞冕佩綬 및 12章制를 도입하고 后妃의 公服도 六服을 제정하였으며 上流階層에는 胡服 착용을 禁하였으나, 원래 胡族이었던 백성들이 번잡한 漢服制를 수용하는데 소극적이어서 通常服으로는 胡服 즉 袴褶이 常用되었으며, 上流層의 漢服制도 後期로 갈수록 그 내용이 간략화 되었다. 北魏에서는 袴褶이 朝服이 되기까지 하였으니, 즉 前代에는 戒嚴服이나 戌服 및 天子의 常服에 머물렀던 바지가 北朝에 와서는 公式禮服化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中原의 복식문화의 胡服化 현상은 역시 鮮卑系 王朝였던 隋代에도 傳承되어 이른바 「隋書」 禮儀志의 “中國衣冠北齊以來乃

全用胡服”化 현상을 나타내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胡服, 즉 袴褶 一邊倒의 복식문화 속의 南北朝의 바지는 前代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획기적으로 表衣化되었을 뿐아니라 그 형태도 상당히 다양해졌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때에는 袍가 짧아져서 바지가 길로 내다 보이는 경우가 많을 뿐아니라, 袍를 생략하거나 옆솔기가 터진 袍의 앞뒤 자락을 바지 가랭이 사이로 고정시켜 바지의 넘적다리 부분까지 보이게 입는 着裝法도 많았다.

바지의 형태 변화에서, 특히 바지부리 부분은 漢代에서와 같이 넓은 바지통의 부리 부분을 주름 잡아 別布의 좁은 帶로 오무리는 대신, 좁혀 재단한 바지부리 끝에 異色 別布를 덧대기도 해 이 시대에 이르면 바지가 다시 表衣의 위치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前代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脚結의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발목 근처를 묶은 모습, 무릎 아래를 묶은 모습 외에도 장식적인 行纏으로 바지부리를 좁혀주고 있다(圖 8).

南朝의 복식문화는 北朝와 비교할 때 漢의 袍·裳문화를 보다 철저히 계승하는 한편 江南지방의 풍토적 조건이나 주변 南方系 민족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南方의 요소, 즉 袍의 寬大化, 長裾化 및 着裝의 輕量化로 옮겨 갔으므로 복식자료 중 바지의 모습은 많지 않고 袍의 반침 옷으로도 생략되는 경우가 흔히 보이나, 庶民·侍從의



〔圖 9〕南朝人の着袴姿
(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究)



〔圖 10〕唐代的着袴姿
(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究)

경우에는 그 기능성으로 인해 여전히 애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의 바지 形制는 대체로 北朝와 유사하나 바지와 같이 입은 上衣는 소매의 寬大化 等の 모습이 北朝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圖 9).

中國의 南北朝時代는 대략 4, 5, 6C로서 바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추정연대와 부합되는 시기이다. 또 이 시기는 앞에서 말한대로 鮮卑族을 중심으로 한 東北亞系 유목민족들이 맹위를 떨치며 漢文化를 변질시켜 나가던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복식문화와 中國의 南北朝時代, 특히 高句麗와 北朝의 의복간에는 北아시아적 胡服 形制를 상당 부분 共有하리라 생각된다.

高句麗 벽화에 나타난 우리 바지를 南北朝의 바지와 비교해 볼 때,

- ① 男子, 특히 下層男性服으로 常用되고 있다는 점.
- ② 短上衣와 같이 袴褶으로 착용하는 점.
- ③ 異色襟이 때때로 나타난다는 점 등이 공통된다.

그러나 高句麗 벽화에서 보이는 우리 바지는 南北朝의 바지에 비해,

- ① 施文 장식 및 別布襟 장식이 혼하며,
- ② 무릎 아래를 묶는 脚結의 짚이나 行纏 사용이 눈에 띄지 않는 점.
- ③ 그 대신 바지부리를 묶는 예가 흔하다는 점.
- ④ 北朝에서 보이는 團領上衣와 袴의 併着이 눈에 띄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것이 高句麗에 限한 차이인지 三國의 복장이 다 그러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며,

어쨌든 高句麗와 南北朝의 바지는 같은 胡服이면서도 上衣의 領이 목선에서 멀리 떨어진 모습, 가슴의 깊은 노출, 直領의 對襟式 着裝法, 直領과 團領의 混用, 冠 및 髮樣의 차이와 더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무릎 아래 脚結의 有無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着裝 모습은 秦代의 俑 및 스키타이인, 페르시아인, 파르티아나 박트리아인 및 노인·올라의 유물에서도 찾지 못하던 점이고, 漢代에서는 武將의 軍服 下衣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漢人에게 있어서는 外來의 요소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鮮卑族의 언어가 몽고어보다는 터키어에 가깝다는 사실과 더불어 생각할 때 이들의 의복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東北亞의 胡服 양식과 그 경로가 다르고 이와 같은 사실이 高句麗의 복식과의 차이 속에 나타난다고 하겠다.

隋·唐代에 이르면 胡服 선호의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서 京官의 朝服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바지는 일반 여성에게까지 유행하여 여성의 胡服騎馬姿가 자주 눈에 띈다.

이때의 바지 形制의 변화를 살펴 보면,

- ① 바지통, 특히 바지부리의 통이 좁아진다.
- ② 脚結姿가 줄어들어 대신, 바지부리 부분을 別布帶로 주름 처리한다.
- ③ 襟장식이 상당히 넓어진다.
- ④ 團領袍와 같이 착용한다.
- ⑤ 줄무늬가 흔하다. 등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圖 10).



〔圖 11-1〕 高句麗·百濟·新羅

〔圖 11-2〕 獅子國



〔圖 11-3〕 宕昌國·武興國·阚槃陀
梁「職貢圖卷」模寫圖
(第七回 亞細亞 복식 학회전시, 臺北)

鮮卑系를 始祖로 한 隋의 服制가 北朝의 服制를 계승하고 있음에 비하면, 唐代의 복식 변화는 현저한 異國風의 수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막강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였던 唐이 silk-road를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中央아시아적 영향이다.

唐이 “胡風”이라고 불렀던 中央아시아적 변화는 복식의 다른 부분, 특히 여성복의 변화나 화장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른 모든 예술 및 생활공예품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지의 형태에 있어서는 특히 줄무늬의 애용이나 바지부리 부분의 別布帶의 cuffs式 처리 등이 분명히 中央아시아적 요소의 수용으로 보여진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나 약 5C경의 梁「職貢圖卷」에 묘사된 諸國使臣圖를 참고해 보면, 芮芮國·阚槃陀·武興國·宕昌國·靺鞨國·獅子國·登陷國 등의 使臣, 즉 盤領袍를 입은 西域系 形像의 인물이 착용한 바지가 唐朝의 바지와 상당히 유사한 반면, 高句麗·百濟·新羅人이 착용한 바지는 전반적으로 바지통의 폭, 바지부리 부분의 넓이, 無文, 直領과 併着 등에서 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圖 11).

V. 近代 中國의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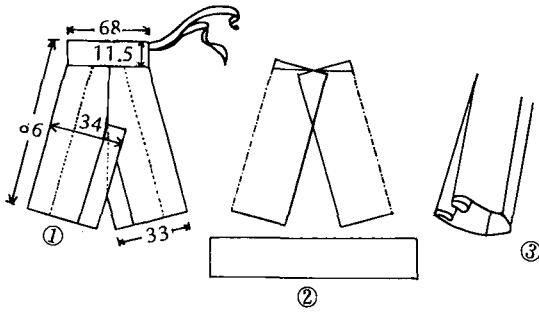
宋代는 정치·문화, 복식史的으로 중국고유 양식으로의 회귀적 성향이 커졌던 때이다. 當代의 복식에 관해서는 南宋의 黃昇墓 및 周瑀墓의 出土品에 관한 문헌이^{18,19)} 있어 미흡한대로 그 모습에 접해 볼 수 있다.

南宋 黃昇墓는 그 추정연대가 13C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179 점의 女服이 出土되었다. 이 중 바지 종류는 24점으로서 8점이 合襠袴, 15점이 開襠袴, 1점이 수장用 無腰無襠禪이다. 옷감은 모두 絹·羅·綾 등의 비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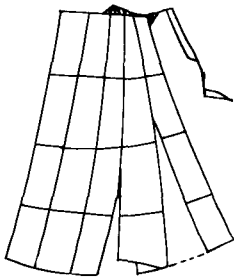
合襠袴, 즉 合襠閉袴는 양 가랭이와 襠, 허리말기와 끈으로 되어 있다. 양 가랭이는 長方形 雙幅으로 되어 앞뒤중심에서 봉합되어 허리말기에 연결되어 있고, 襠은 밑이 봉합되어 있으며, 右側에 트임이 있어 絲帶나 布帶가 붙어 있다. 閉袴類에는 이외에도 兩外側開中縫合襠袴 및 右邊中縫開片袴도 있는데 內外側開中縫合襠袴는 양 가랭이와 허리말기·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랭이 아랫 부분에 옆트임이 있고, 右邊中縫開片袴는 가랭이 아랫 부분에 트임이 있는 특이한 양식이다(圖 12).

開襠袴의 바지가랭이는 長方形 單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리말기에 주름을 잡고, 양 바지가랭이 안쪽에 三角形의 작은 襠을 달았으나 縫合하지 않았다. 허리는 뒤 中央이 열리게 달고 허리 양 끝에 끈을 달았다(圖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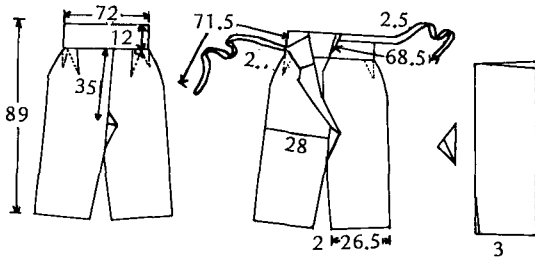
한편 南宋의 王立大學이었던 「朴中大學」의 學生 周瑀의 墓에서도 合襠袴 4점, 開襠袴 3점이 出土되었다.¹⁹⁾ 이들은 絹·袖·羅紗·綺 등의 비단으로 되어 있고 전체 길이는 黃昇墓의 出土品과 같으나 그 形制에 있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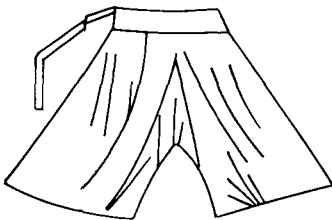
【圖 12-1】黃昇墓出土 黃褐色花羅兩外側開 中縫合襠袴
(朴京子：生活文化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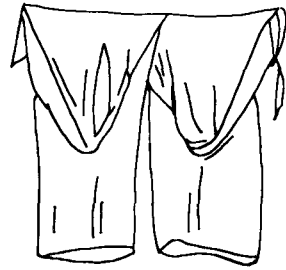
【圖 12-2】右邊中縫開片褲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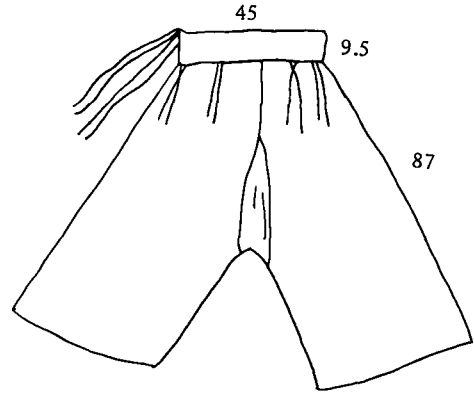
【圖 13-1】黃昇墓出土開袴
(朴京子：生活文化研究)



【圖 13-2】黃昇墓出土開袴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



【圖 14-1】周瑀墓出土 開襠袴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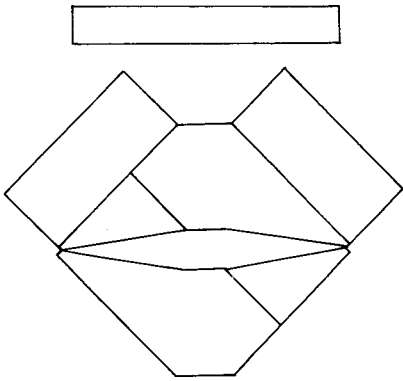
【圖 14-2】周瑀墓出土 合襠單袴
(古考學報, 28)

차이가 있다(圖 14).

즉 閉袴의 경우, 黃昇의 合襠袴에는 四角襠이 달리고, 허리와 허리말기의 접합부분에 주름을 잡지 않았는데 비해 周瑀의 合襠袴에는 三角襠이 달리고 허리에 많은 주름이 잡혀 있으며 바지부리가 상당히 넓다.

閉袴의 두 유형은 匈奴王墓에서 본 두 개의 바지 유형과 그 形制에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三角襠袴는 絹製袴와 四角襠袴는 毛製袴와 같은 계통의 變形으로 보인다. 그러나 三角襠袴가 絹製袴의 기본형태를 그대로 취하면서 바지부리만 풀어준 형태라면, 四角襠袴는 襠의 구성이 두 조각이 아닌 한 조각의 布요, 밑위가 入字형이 아닌 점이 다르다. 또한 襠이 四角形인 점도 毛製袴와 다르다. 그러나 毛製袴의 襠도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三角當이 아닌 四角襠이었으리라는 점은 Hansen이 이미 入字形(혼합형) 바지의 襠이 四角襠에서 연유하였으리라 추측한데서 유추해낼 수 있다.

즉 Hansen은 四角襠에서 필요없는 여유분을 제거해 내어서 三角襠이 비슷하게 되었다는 추정을 하였다(圖



【圖 15】 사복형 바지의 전개도, (사복형 바지의 四角形褶原形을 추정해 본 圖型)
(H.H. Hansen: *Mongol Costume*)



【圖 16】 「盤車圖」에 나타난 開襠袴姿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15).

즉 黃昇의 合襠袴는 匈奴王墓에서 본 毛製袴-入字形 밑위선 바지-에 나타난 四角褶과 絹製袴에 나타난 양말형-I字形 밑위선-이 합성된 또 하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바지는 16C 후반의 우리 바지에도 나타나는 形制로서 사복바지가 近代의 형태로 정착하기 이전의 모습 중의 하나라고 본다.

한편 開襠袴는 合襠袴와 같이 雙幅 구성에 작은 三角當을 달았으나 바지가랭이가 허리선에서만 붙어 있다.

이와 같은 形制는 瑯琊墓의 開襠袴와 흡사하여 男女의 開襠袴의 形制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開襠袴는 당시의 成人男女의 대다수가 合襠袴 위에 입던 것이라 하고, 黃昇도 한 개의 合襠袴 위에 여러 개의 開襠袴를 입고 있었으며, 浙江蘭溪南宋高氏女墓나 河南白沙二號

宋墓 벽화 등에도 開襠袴가 나타나는데 그 形制가 유물과 일치한다고 한다.²⁰⁾

開襠袴가 合襠袴 위에 입혀졌다는 점은 문헌상으로도 「急就篇」 顏注에 “合襠謂之禪, 最親身者也”라 한데서 밝혀진다.

開襠袴가 合襠袴보다 가랭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점으로 보아 開襠袴는 合襠袴의 지나친 여유분을 다소려 신체 동작상의 便易度를 높이는 기능이 컸던 것 같다.

이와 같은 기능이나 刑制는 日本의 股引(ももひき)와 흡사하여 두 복식 종류 사이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開襠袴의 명칭에 대해서는 黃昇墓와 周瑯琊 出土品の 발굴 보고서에서 각각 다른 명칭을 쓰고 있어서, 黃昇墓의 것에 대해서는 ‘開襠袴’, 周瑯琊의 것에 대해서는 ‘套袴’란 用語를 사용함을 볼 수 있으나, 套袴는 近代에 생겨난 것으로서 左右各 2개의 떨어진 가랭이에 끈을 달아 허리띠에 묶어주는 옷종류이므로²¹⁾ ‘開襠袴’라고 표현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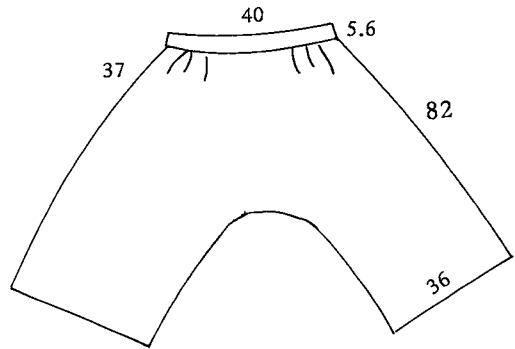
五代末 宋初의 「盤車圖」에는 위의 開襠袴를 勞動者가 合襠袴를 생략하고 맨살에 착용한 모습이 있어 그 다양한 착장법, 착장계층 및 용도를 알 수 있다.

遼·金·元代의 복식 문화가 통치계층의 異族의 源流로 인해 中華의 전통적 복식문화의 흐름을 벗어나는 異質의 특색을 강하게 띠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지배계층에서는 漢族의 儀禮中心의 袍裳式 복식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므로 宮庭生活 中心으로 남아 있는 유물 속에서 이들의 전통적 복식 형태를 찾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當代의 加彩俑 및 벽화 등에서 상당히 넓고 길어 발등을 덮게 늘어뜨려진 바지가 男侍俑에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童俑·侍吏俑 등은 아주 좁은 管形의 바지를 입고 있고, 「文姬歸漢圖」에 나타난 人物의 복식에는 풍성한 주름 있는 바지가 騎馬者나 侍者 등에 표현되어 있어 寬細 兩形의 바지가 두루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급이 낮아질수록 細袴 형태를 취하였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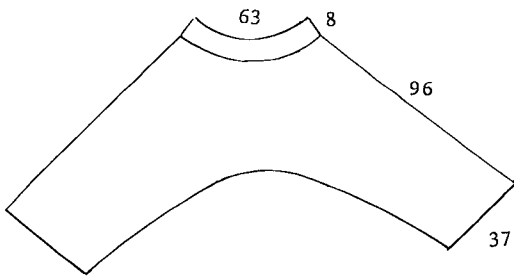
山東鄒縣 李裕庵墓 出土의 元代 女子바지를 보면 開襠袴 着裝의 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圖 17). 그러나 開襠袴의 구체적 形制는 黃昇이나 周瑯琊의 것과 비교할때 약간 달라 보인다. 즉, 褶이 三角이 아닌 四角褶이고, 褶과 허리 부분의 연결로 틈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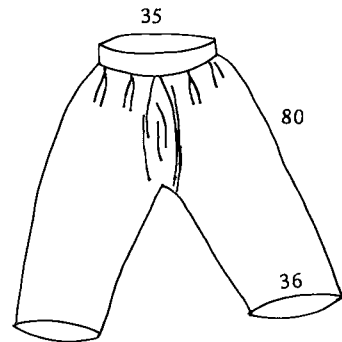
【圖 17】元代婦女的開襠褲
(周汛等：中國歷代婦女妝飾)



【圖 19-1】徐蕃夫婦墓女子白袍褲



【圖 18】江蘇泰州市明代徐蕃夫婦墓出土男子素綢棉袴
(文物 第九期)



【圖 19-2】徐蕃夫婦墓女子素綢棉袴
(文物 第九期, 1986)

이와 같은 점을 遼·金·元 三代가 모두 胡族國家로서 自國 固有的 服制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王朝였던 점과 더불어 생각할 때, 元代的 이 四角襠 女子 開襠는 宋의 遺制라기보다는 오히려 胡族 高유의 服制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元代的 開襠袴와는 形制가 약간 다르나 四角襠이 붙은 開襠는 襠이 전혀 없는 開襠와 더불어 奈良朝服飾에 나타나고 있으므로²²⁾ 中國에서도 唐代 정도에는 四角襠이 붙은 開襠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明代는 약 한 세기 반 동안의 異族의 지배를 벗어나 漢文化의 잃어진 전통을 회복하고자 對內外的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던 시기이다. 宋文化에로의 복고적 경향 속에서 복식문화 또한 深衣制中心의, 直領中心의 전통 形制로의 복귀가 유행하였다.

明代의 바지로는 江蘇泰州市 徐蕃夫婦墓의 男女袴 各

1점씩을 들 수 있다.²³⁾

이 중 男子 바지는 겉은 素綢棉, 안은 白布로 된 겹고로서 허리띠가 바지말에 붙어 뒤로 묶어 맺게 되어 있으며 全長 96, 腰寬 126 cm의 비교적 길고 넉넉한 바지이다. (圖 18)

사진으로 그 形制를 잘 알 수는 없으나, 바지를 펼친 모양이 우리나라의 男子 바지와 유사해 보이며, 入字 밑 위 구성의 閉袴로 보인다. 허리둘레의 크기, 바지의 길이, 허리띠와 바지통과의 연결부분에 주름이 없는 점, 바지통이 차차 좁아지는 점, 兩 바지가랭이가 펼쳐진 角度 等を 보건데, 宋代 周瑀墓 出土의 男子 바지와는 그 크기나 形制面에서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다.

女子 바지로는 白布袴와 素綢棉袴가 各 1점씩 있는데 둘 다 트임이 허리 한쪽으로 있고 좁은 帶가 붙어 있으며, 길이 80 內外, 허리둘레 80 미만, 바지부리 36 cm 정도의 크기로서 男子 바지에 비해 길이가 짧고, 또 트임이 있다는 점, 바지부리와 허리와의 크기 차이를 주름

으로 처리한 점이 다르다. 女子 바지에는 三角襠이 확실히 붙어 있으나 그 開閉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圖 19)

周瑀 및 黃昇墓의 바지와 비교할 때 周瑀墓의 男子 바지는 徐蕃墓의 女子바지의 形制나 크기와 유사하며, 徐蕃墓의 男子 바지는 清代의 中國바지나, 近代 韓國 男子 바지와 흡사하고 黃昇墓의 女子 閉袴와 全長·허리둘레·바지부리 등에서 오히려 유사하다. 이 바지가 필자가 추측하는대로 斜幅구성이라면, 이와 같은 入·八字 밑위선 구성의 바지는 노인·올라에서 발굴된 毛製 바지 계통의 形制인 것이며, 이것이 明代의 유물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바지가 明代에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가 보다는 I字 밑위형 開袴 및 三角襠·四角襠이 달린 開袴等 男女 바지의 다른 유형과 함께 긴 袍裳 속에 가려져서 左右 非대칭의 근본 形制는 不變인채 부분적인 변모를 겪으면서 傳承되어 왔으리라고 본다. 즉 西漢代의 絹製袴와 毛製袴의 두 유형이 계속 中國바지의 기본적 閉袴形制로 유지되어 오면서 때로는 黃昇墓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女子閉袴形制로도 애용되기도 하고, 혹은 徐蕃墓에서의 男子 바지 및 清代 이후 男女 바지로 나

타난다고 본다.

滿洲族이 세운 清朝는 祭服과 補章을 제외하고는 朝服에서부터 民庶服에 이르기까지 滿洲服을 강요했던 시기이다. 清朝 초기에는 長袍로 말미암아 바지가 잘 보이지 않으나 후기로 가면서 襖袴 및 馬褂 아래로 바지의 형상을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바지 가랭이 폭은 넉넉한 편이나 바지부리는 묶는 경우가 더 많다. 光緒年間에는 女子 바지의 가랭이 폭이 과장스럽게 넓어져서 마치 치마바지 같고 바지 끝에 別布의 넓은 二重 장식撰, 즉 ‘鑲’이 덧대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하급관리, 庶民 및 江北의 女子들 사이에는 套袴가 널리 입혀졌는데 이때의 套袴는 宋代의 유물 套袴와 비교하면 바지부리 부분에 帶狀의 uuffs가 달린 점, 엉덩이 부분이 훨씬 많이 파인 점이 달라 보이거나 대체로 비슷하다. 이 외에도 短袴도 눈에 띄며, 또 바지허리 앞 부분을 끌어 올렸는지 바지부리 부분이 앞길이가 뒷길이가 보다 짧게 나타나서 바짓단이 斜線으로 보이는 着裝法도 보인다(圖 20).

清代의 바지 形制에 대한 자료로는 「亞洲服飾展 圖錄」에²⁴⁾ 실린 女子 바지 4점과 Max Tilke의 「Le Costume·Coupes et Formes」²⁵⁾에 실린 男女 바지 4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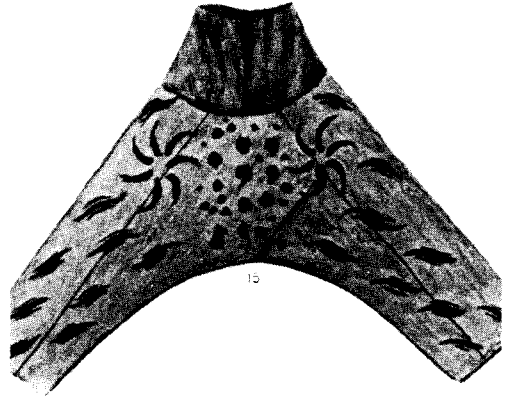
【圖 20】 清朝의 着袴姿
(周錫保: 中國古代 服飾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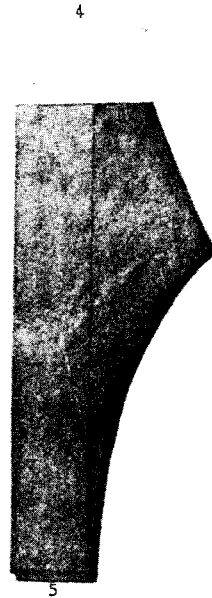
【圖 21-1】清末 婦女 閉袴



【圖 21-2】清末 婦女 開袴
(亞洲服飾展圖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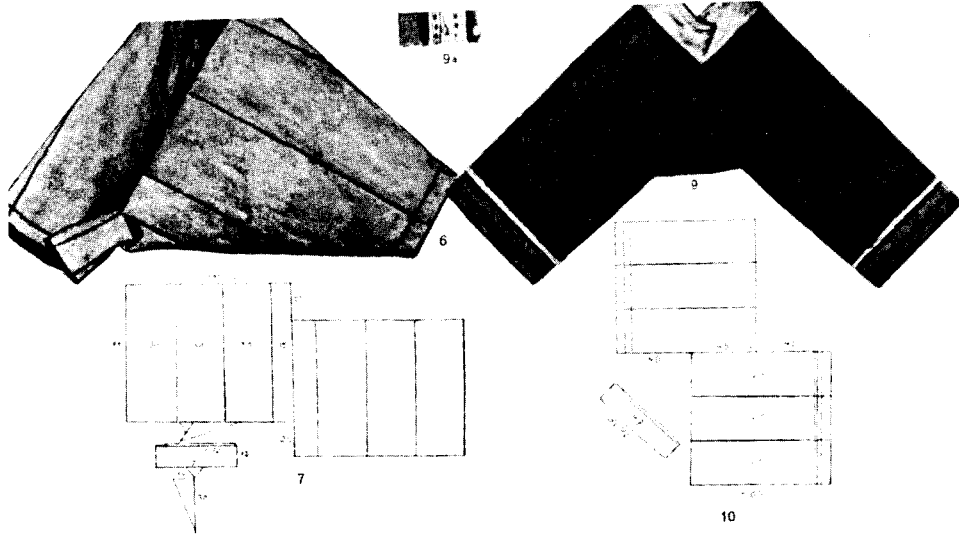
【圖 22-1】清代的 男子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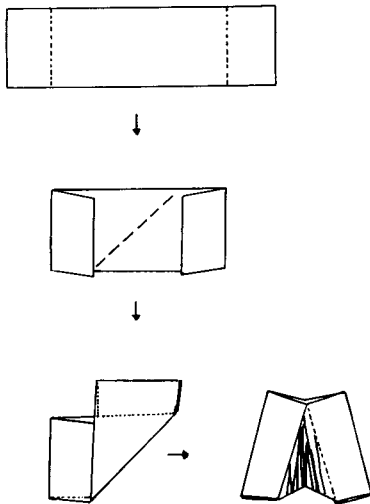
【圖 22-2】(MAX TILKE: *Le Costume·Coupes et Formes*)

들 수 있다.

이중 圖錄에 실린 女子 바지는 清末·民初期の 것으로서 그 기본 形制는 대체로 明代의 男子 素綢棉袴와 유사하다. 즉 허리부분이 트임이 없이 상당히 넓어 앞 中心에서 바짓말을 포개어 別度의 布帶로 묶는 점, 허리와 바짓말의 연결부분에 주름이 없는 점, 上下 바지통의 넓이가 비슷한 점, 八字形의 밑위선 등이 그러하다. 이 중



【圖 23】南西部 中國女袴
(MAX Tilke: *Le Costume·Coupes et Formes*)



【圖 24】苗族의 바지구성
(小川安朗: *民族服飾의 體系*)

1점은 三角褸이 들어간 開袴형식으로서 一般婦女間에 흔히 통용되었다 하여²⁶⁾ 開袴착용의 풍습이 清代에까지 傳承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開袴는 宋·明代의 套袴類와 달리 앞뒤 중심선은 달혀 있고 가랭이 밑선의 일부만 트여있는 특이한 형식이다. 바지부리에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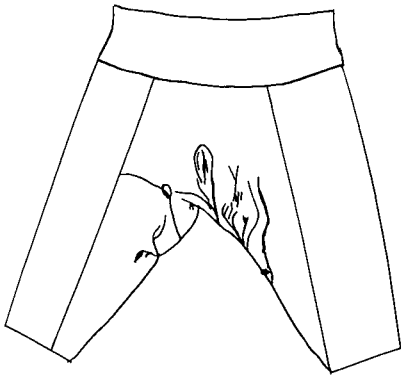
부하게 사용된 장식선과 弧形波紋·蘭花紋·滾邊등의 자수장식은 清代에서의 바지가 外衣化된 格上현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허릿말을 모두 白布로 사용한 점 또한 前代의 바지와 다른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圖 21).

나머지 한 점은 套袴인데 短上衣와 素材, 문양이 같은 한 벌의 옷으로서 套袴가 女服에 있어서도 충분한 外衣의 기능을 가졌음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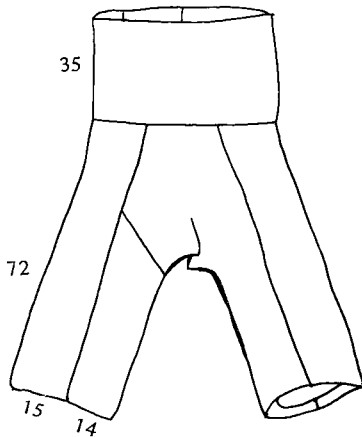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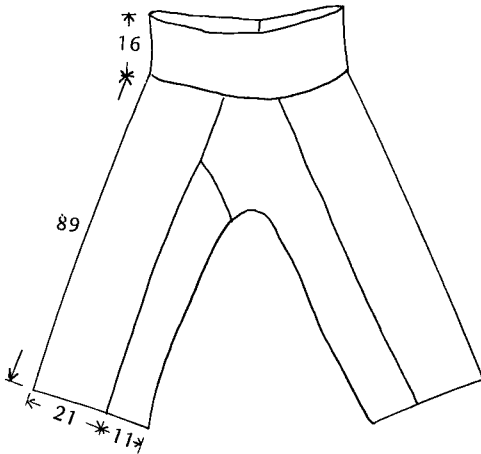
MAX Tilke의 책에 실린 男袴 중 1점은 清代 護衛兵의 軍服 下衣로서 褂上衣와 한 벌을 이루고, 다른 한 점은 褂 및 背心과 더불어 한 벌을 이루는 正整用으로서 ㄱ八字 밑위 形制는 바지말의 앞중심 트임을 빼고는 우리나라 男子 바지와 흡사하다(圖 23).

그러나 外形이나 봉제법 등을 살펴보면 이들 바지는 앞의 바지와 상당히 다르다. 즉 허리선이 상당히 가파르고 褸이 거의 분리 재단됨이 없이 특이한 봉제법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지는 타일랜드의 소수민족인 苗族의 바지 봉제법 중 하나인 圖 24²⁷⁾의 특이한 양식에서와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본 清朝의 男女袴의 形制를, 漢族의 복식문화를 軸으로 변화시킨 褂나 旗袍 등과 같이 생각하면 清朝 固有의 바지 形制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앞에서 본, 明代 徐氏墓의 유물이나 匈奴王의 入字 술기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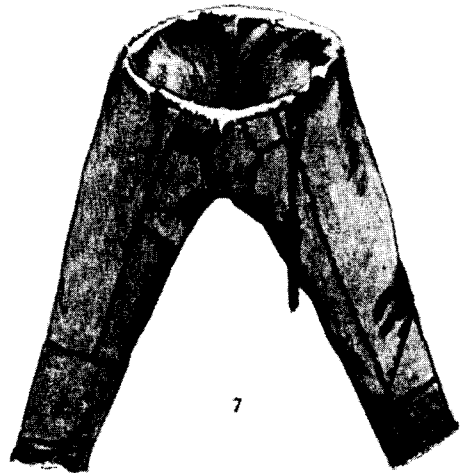
〔圖 25〕 몽고인의袴
(H.H. Hansen: *Mongol Costume*)



〔圖 26〕 말레이시아인의 男袴
(世界の民俗衣裳)²⁸⁾



〔圖 27〕 타일랜드 mien族의 사복바지
(P & E. Lewis: *Peoples of Golden Triangle*)²⁹⁾



〔圖 28〕 시베리아인의 八字술기 바지
(MAX, TiLke: *Le Costume·Coupes et Formes*)

등으로 미루어보면 이와 같은 中國袴의 기본 形制, 즉 入字 및 1字 술기의 形制는 上古로부터 中國과 일부 北亞細亞系 胡族들이 공유해온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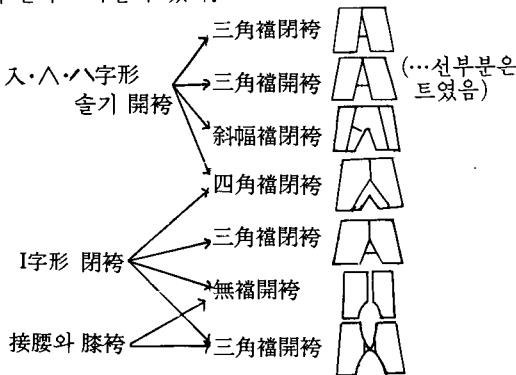
入字—八字—八字 술기 바지는 韓國과 中國 외에도 몽

고(圖 25), 몽고系 터키스탄인인 shan族, 말레이시아 (圖 26)²⁸⁾, 태일랜드의 Lisu, mien 族(圖 27)²⁹⁾ 등의 소수민족과 中國의 諸 주변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멀리서 시베리아의 원시적 獸皮바지에서도 그 흔적이 있고(圖 27), 다른 形制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모습도 있다.

VI. 論議 및 結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래 袍裳민족이었던 漢族의 바지착용은 胡服의 수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古代的 形制는 기원전후의 흉노왕의 바지에 나타난 絹製 및 毛製 바지의 入字—I字형 슬기의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유형은 다른 의복종류와 함께 北方諸族 및 西域國 等の 영향을 받아 그 幅의 寬狹과 세부적 구성양식의 변화를 겪어 왔다. 閉袴의 발달과 더불어 匈奴王墓에서 보이는 接腰나 裳文化圈에서 발달한 膝袴도 차차 그 길이가 길어지고 腰帶와도 접합되어 開袴 혹은 套袴 형태로 발전해 나갔으리라고 본다. 淸朝의 바지에 분명하게 存在하여 한국 및 기타 주변국의 바지와의 形制 共有性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斜幅바지는 明代의 유물자료를 제시하는 문헌의 불명료성으로 인하여 정확히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服制가 淸朝의 服制에 일관된 거부반응을 보여 온 점, 우리 斜幅바지의 上限연대가 淸朝開始 연대이상으로 소급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明代의 斜幅구성바지의 存在를 추정할 수 있고 그 形制의 출발점은 匈奴王의 毛製袴로 소급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中國바지의 形制유형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1)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p 107
- 2) 王宇清, 上揭書, p 108
- 3) 周汛, 高春明(編著), 中國歷代婦女妝飾, 南天書局; 台北(民國 77)
- 4)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丹青圖書有限公司; 台北(1976)
- 5) 王宇清, 前揭書, p 108
- 6) 周汛, 前揭書
- 7) 王宇清, 前揭書, p 108
- 8)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民國 45)
- 9) 任明美, “中國의 民俗禮服 形成 및 服飾變遷에 關한 東北亞細亞 民族服飾의 影響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誠信女子大學院(1988), p 103
- 10)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文化出版局; 東京(昭和 54), p 241
- 11) 世界の博物館—中國故宮博物院, p 163
- 12) ① Karl Jettmar, *Art of the Steppes*, Methuen: London (1967), pp 162-164. ② W.ワトリン, 中國古代文明, 永田英正(譯), 創文社: 大阪(昭和 46), pp 106-108. ③ Sherman Lee, *Far Eastern Art*, Prentice-Hall: NY, pp. 23-27
- 13) 注宇生, “晋庁右塞山青銅器圖象所見古代民族考,” 考古學報 1979年, 第 4期, pp 423-439
- 14) 張末元, 漢朝服裝圖樣資料, 金英淑(譯), 東洋服飾研究院: 서울(1984)
- 15) 周汛, 高春明(編著), 前揭書
- 16) H.H. Hansen, *Mongol Costume*, København, (1950), p 107
- 17) 加藤定子, “北方ユーラシア牧畜民の衣服(ズホン)についての考察” 國際服飾學會誌, No 2, 1985, pp 57-67
- 18) ① 朴京子, “福州南宋黃昇墓出土服飾 研究,” 衣生活文化研究 第 3輯,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1989) pp 1-36 ② 周錫保, 前揭書 ③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下),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 台北
- 19) 鎮江市博物館等, “金培南宋固瑠墓,” 考古學報 28, 1977 第一期; 北京, pp 105-132
- 20) 上揭書, pp 108-109
- 21) ① 王宇清, 前揭書 ② 周錫保, 前揭書, p 335
- 22) 關根果隆, 奈良朝服飾の研究(圖錄編), 吉川弘文館
- 23) 泰州市博物館, “江蘇泰州市代徐蕃夫婦墓清理簡報, 文物, (1986), 第九期, pp 1-9
- 24) 中華民國 國立博物館, 亞洲服飾展圖錄

- 25) MAX Tilke, *Le Costume-Coupes et Formes*, ALBERT Morancé: Paris (1967)
- 26) 亞洲服飾展圖錄 前掲書, p 61
- 27) 小川 安朗, 民族服飾の體系, 衣生活研究會: 東京 (1979), p 47
- 28) 田中千代, 世界の民俗衣裳, 平凡社: 東京(1985)
- 29) Paul & Elaine Lewis, Peoples of Golden Triangle Thames and Hudson: NY (1984)